

밥맛·미질 등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전남쌀 10대 브랜드 10년 이상 수상 비결은?

최근 전남도가 올해 전남을 대표할 '10대 브랜드 쌀'을 선정, 발표했다.

대상에 담양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최우수상에 영광의 '사계절이 사는 집'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은 무안의 '황토랑쌀', 보성의 '녹차미인 보성쌀', 영암의 '달마지쌀 골드'가 뽑혔고, 장려상은 강진의 '프리미엄 호평', 함평의 '나비쌀',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곡성의 '백세미', 화순의 '자연속에 숨미'가 각각 차지했다.

총 10개 고품질 브랜드쌀 가운데 8개 브랜드가 10회 이상 선정됐다. 밥맛·품질·안전성 등 6개 전문 기관이 두 달 동안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해 뽑은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단골이 된 비결은 뭘까.

◇6개 브랜드 10년 이상 통린= 올해 대상을 차지한 담양 '대숲맑은쌀' 등 6개 브랜드는 10년 이상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영

10대 브랜드 대상 '대숲맑은 담양쌀' 해남 '한눈에 반한 쌀' 18년 연속 수상

영암 '달마지쌀 골드' 17차례 수상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 차별화

철저한 계약재배로 당일 도정 출고

암 '달마지쌀 골드'는 2008년 한해 탈락해 17차례 수상했다.

강진 '프리미엄 호평'은 15년 연속,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은 13년 연속, 무안 '황토랑쌀'은 11년 연속·13회 수상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전남도는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중 판매처에서 2회(3·4월)에 걸쳐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했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은 밥맛과 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의 품위(싸라기, 이물질 혼입 등)를, 농업기



술원은 품종·DNA 등 이화학적 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원은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하는 등 기관별 정밀검사를 거쳤다.

◇생산·가공·유통 고급화·차별화= 10대 브랜드쌀은 밥맛과 미질 등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담양 금성농협의 '대숲맑은 담양쌀'은 생산에서 가공·유통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한 것이

비결이다. 생산에서는 철저한 계약재배에 따른 품질 고급화를, 유통에서는 당일 도정해 출고하는 1일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15일이 지난 쌀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하는 '소비자 리콜제'를 시행한 것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영암 '사계절이 사는 집'은 밥맛과 단일품종 증가율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가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브랜드쌀의 외관, 밥맛 등 품질 고급화로 대내·외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은 18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전남쌀 브랜드 중 유일하다. 이 쌀은 한반도 최남단의 깨끗하고 맑은 천혜의 농업지역 땅끝에서 전량 계약재배로 생산된다. 자연농법 중 목초액·키토산 농법으로 재배해 토양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밥맛을 떨어뜨리는 단백질 함유량을 줄인 게 특징이다. 피해립, 유색립, 싸라기 등 이물질을 제거해 완전무결하고, 주문과 동시 도정에 공급하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무안 '황토랑쌀'은 11년 연속, 총 13회 선정됐다. '황토랑쌀'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되어 미질뿐 아니라 밥맛까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재배를 통해 매뉴얼에 따라 엄격히 품질을 관리하고 선별 과정을 거치는 등 원료급 재배와 제품 생산, 관리 등 모두 높은 평점을 받았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순천시 창업 컨트롤타워 '창업연당' 출범

문화·융복합·신중년 창업 지원 활성화

순천시의 창업 컨트롤타워인 '창업연당'이 출범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창업 관련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창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창업연당 사업보고회'를 열어 첫 출발을 알렸다.

조례동에 마련한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창업팀 4팀과 창업연당 운영사가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푸드컬처랩이 손쉽게 김치를 만들고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는 분말제품인 김치시즈닝 사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에스씨크리에이티브는 순천만정원 등 관광지에서 구현가능한 AR 관광안내 서비스를, ㈜브이알크루는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필요 없는 VR 컨텐츠를 사업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씨엔은 동물친화도시에 걸맞은 반려동물 플랫폼



순천시 창업 컨트롤타워인 '창업연당'이 최근 사업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순천시 제공>

품을 확산하는 사업구상을 선보였다. '창업연당' 운영팀은 문화기반 융복합 창업과 마이스터 신중년 창업 지원을 활성화해 순천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창업 상담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창업연당' 운영시간을 평일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혀 창업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순천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순천의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잇는 모델 구축을 위해 마케팅 및 판로 확보, 투자자 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의원들 "소통으로 지역사회 갈등 해결 하자" 촉구

광양시의원 7명이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갈등 해결에 모두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 나형선, 백성호, 조현숙, 서영배, 박말레, 정민기, 최대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양제철소 운송 협력사인 성암산업 노사 갈등과 환경단체 활동가 고소 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71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성암산업이 2017년부터 노사 갈등과 고용 불안 장기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고 통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성암산업 노

사분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광양만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도 적극 소통해 서로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광양제철소 운송 협력사 ㈜성암산업 유재각 대표는 회사 노동조합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조가 집회와 파업, 시위 등을 계속하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30여 년 이어온 협력 작업권을 반납하기로 선언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의병 777명 기린다...오늘 '의병의 날'

보성군은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벌교읍 흥암나철 기념관에서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대상을 보성지역 의병 후손과 기관·단체로 최소화한다. 또 행사장 일원에 대한 방역 소독·발열 체크·마스크 착용 및 배부·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대책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행사장에서 모든 참석자는 의병 복장을 하고 한화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조국을 위해 희생한 보성 의병 777명의 정신과 혼을 되새긴다.

식전행사로 연바람 연극단의 '안규홍 의병장' 공연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합창단의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해 기준받은 의병 유물 88점 중 30여점을 전시해 보성 의병이 남긴 활동상을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흥암 나철 기념관.

보성군은 흥암 의병의 중심 거점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을 창 의한 죽천 박광전 선생과 전라좌도 의병장 임계영 장군, 우산 안방준 의병장을 비롯해 한말 의병활동을 한 담살이 안규홍 의병장,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선생, 흥암 나철 선생 등을 배추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75차례 흔들'...해남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해남군은 최근 산이면 부동리 일원의 잦은 지진 발생에 따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고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민간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다.

내진성능평가비용 최대 2400만원과 인증수수료 350만원을 지원해 총 27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절차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전문업체에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를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명판'을 받아 건물에 부착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는 1978년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지진이 발생 한 적 없다가 지난달 26일 이후부터 7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